

# 2007CES(세계 가전전시회)를 통해 본 세계 IT산업 트렌드

출처 : 전자정보센터



## 2007 CES Mega Trends 분석

*Trend 1 AnyTime, AnyWhere, AnyDevice Connected Life*

### 3) 휴대전화, 멀티미디어 단말기의 부상

Motorola의 Ed Zander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Connectivity Life”의 실현에 가장 유리한 단말기가 바로 휴대전화이며, 멀티미디어 단말기로서의 휴대전화의 가능성이 무한함을 강조했다. Zander회장은 무엇보다도 휴대전화를 통해 PC에서 즐기던 인터넷 환경이 제공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휴대전화의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Motorola와 Yahoo!는 지속적인 제휴를 통해 개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Yahoo! Go 2.0’의 베타 버전을 이번 CES에서 발표했다. ‘Yahoo! Go 2.0’은 모바일 인터넷 사용에 보다 특화된 혁신적인 디자인을 구현하고, 모바일 검색 기능을 보다 강화했다.

[사진 1] Yahoo! Go Mobile 2.0의 메뉴 구성



자료 : Yahoo!, Strabase 재구성

'Yahoo! Go 2.0' 베타 버전은 현재 Motorola의 'MOTORAZR maxx V6', 'MOTORAZR V3xx' 단말기 모델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2007년 상반기부터 Motorola뿐만 아니라 Nokia, 삼성전자, RIM(Research In Motion) 등 세계 유수의 단말기제조업체들의 70개 이상 모델에서도 소프트웨어 다운로드가 가능할 전망이다.

## 미디어 서비스 강화

Nokia 또한 다양한 미디어 서비스 기능을 구비한 신규 단말기들을 선보였다. Nokia N76, N800, Nokia 6131(NFC phone), Nokia N93i 등 이번에 첫 선을 보인 단말기들은 다양한 기능을 내장한 복합형 모델이라는 공통점을 띄고 있다.

Nokia N76은 Windows Media DRM 기술에 기반한 멀티미디어 재생기능을 갖췄고, 2메가픽셀 카메라와 가로방향 지원형 2.4인치 스크린을 탑재했다. 또한 이 단말기에는 Symbian OS인 S60과 인터넷 검색을 위한 Nokia Mobile Search를 지원한다.

쿼티(QWERTY) 방식의 full screen 키보드와 내장 웹 카메라를 탑재한 Nokia N800은 스테레오 오디오와 미디어 재생기능을 갖췄으며, N93i는 디지털 캠코더를 탑재한 멀티미디어 복합형 단말기라는 점이 특징이며, Symbian의 S60(3rd Edition)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Six Apart의 블로그 서비스인 Vox를 지원한다. NFC(근거리 무선통신기술) 단말기인 Nokia 6131의 경우, Bluetooth, microSD 등을 지원하며, 1.3 메가픽셀 카메라와 FM 스테레오 기능 등을 갖췄다. Nokia 6131은 올 1/4분기 중 260유로에 출시될 예정이다.

[사진 2] CES에서 발표한 Nokia 단말기

N76 	Nokia N93i 
Nokia N800 	Nokia 6131 

자료 : Nokia

### 4) Old Media's revival New Media와의 결합

이번 CES에 나타난 변화는 기초연설의 연설자에서만 봐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2006 CES의 경우, 개최 기초연설자로 New Media의 대표주자인 Yahoo!와 Google의 CEO가 나섰던 반면, 이번 2007 CES는 Old Media의 대변인인 Walt Disney와 CBS의 CEO였다.

Old Media 업체들이 새롭게 Digital Home 가전시장에서 각광받게 된 것은 이들이 New Media 즉, 디지털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선회했기 때문이다. 또한 차세대 가전시장 장악을 위한 경쟁력이 더 이상 기술력이 아닌 콘텐츠의 확보에 있음이 부각되면서 콘텐츠 보유업체들의 Digital Home 가전시장 진입 사례들이 빈번해지고 있다.

美 방송사인 CBS의 Leslie Moonves CEO는 CES 기초연설에서 차세대 미디어로 각광받고 있는 Sling Media와의 제휴를 발표했다.

CBS는 Sling Media와 제휴해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의 사용자간 공유를 지원하는 데스크탑용 신규 애플리케이션인 'Clip+ Sling' 를 출시해 온라인 커뮤니티 세대를 공략할 것 방침이다.

Leslie Moonves CEO는 Sling Media와의 제휴에 대해 “이제 CBS는 기존의 일방향 콘텐츠 유통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신/구 미디어간의 구분 자체가 무의미해진 현 시점에서, 어느 사업자와 어떠한 형태의 미래지향적인 협력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뉴미디어와의 결합을 통해 미디어시장의 강자로서 회생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글로벌 미디어기업인 Walt Disney의 Iger CEO도 “최근 몇 년간 Disney는 다른 여타의 미디어기업들 보다 뉴미디어 유통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나타내 왔다”며, “앞으로도 Disney의 콘텐츠가 다양한 단말기를 통해 제공되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했다.

### Trend2 High Quality Content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려는 업체들의 전략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대화면화(大畫面化)를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화질 콘텐츠의 제공을 위한 움직임이다.

그간 TV시장은 국내업체와 일본업체간의 경쟁이 치열해왔으나, 이번 CES에 각사가 공개한 제품들을 살펴봤을 때, 양 진영간 제품 Linup 방향이 다소 상이하게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나 LG전자와 같은 국내업체들은 대화면보다는 고화질을 추구한 제품들을 위주로 선보인 반면, 일본 가전업체의 대표주자인 Sharp는 세계 최대 화면 사이즈인 108인치 LCD TV인 AQUOS를 공개했다.

## 본격적인 Full HD 시대 진입

이번 2007CES의 주목할 만한 점 중의 하나로 다양한 사업자들로부터 Full HD 기반의 각종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공개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세계 주요 가전업체가 지난해 CES에서는 시제품 수준의 Full HD TV를 공개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 ① Full HDTV

영상의 꽃이라 할 수 있는 TV 부문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 Sony, Philips 등 세계 유수의 가전업체들이 다양한 Full HD TV 라인업을 공개했으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처음으로 메인 부스를 설치한 중국의 하이얼 또한 Full HD LCD TV를 선보였다. 삼성 전자의 경우 지난해 큰 인기를 끈 Full HD LCD TV인 '모젤' 시리즈의 성능과 디자인을 한층 업그레이드 한 '툴립' 시리즈를 선보였으며, LG전자가 일본 계열업체인 SEGA와 풀HD의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치열한 경쟁 구도를 보였다.

[표 1] 주요 TV 가전업체의 Product Lineup

Company	Product Lineup
삼성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ull HD LCD TV '툴립' 시리즈</li> <li>- 70·82인치의 대형 풀HD LCD TV(출시예정)</li> <li>- 50·63·80인치 풀HD PDP TV(상반기 출시예정)</li> <li>- 100,000 : 1 명암비 40인치 LED LCD TV</li> <li>- 슬림 DLP 프로젝션 TV</li> </ul>
LG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ED BLU 채용한 47인치 LCD TV</li> <li>- 50·60인치 Full HD PDP TV</li> </ul>
Son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27인치 OLED TV</li> <li>- 레이저 백라이트를 채용한 55인치 프로젝션 TV</li> <li>- 70·82인치 Full HD LCD TV</li> <li>- 40~50인치대의 Full HD TV</li> </ul>
Panason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60인치 대 Full HD PDP TV가 주력상품</li> </ul>

### ② TV의 Full HD 제품

TV 부문 이 외에도 2007 CES에서는 Full HD를 지원하는 다양한 제품들이 소개되었다. 컴퓨터 부문 주요 업체인 Sony와 Panasonic, JVC, Sanyo, Canon 등은 Full HD를 지원하는 각종 디지털 캠코더를 전시했으며, PC 및 게임 콘솔 부문에서도 Sony가 Full HD 규격의 신형 Play Station 3를 전시한 것을 비롯해 다양한 PC 사업자들로부터 Full HD를 지원하는 모니터가 공개되었다. 또한 헐리우드 대형 영화사에서 게임 제작사에 이르는 다양한 콘텐츠 사업자들이 Full HD용 콘텐츠를 공개하는 등 Full HD 시장은 바야흐로 시장 사업자 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넘나드는 전방위적인 경쟁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